

포스터 I-2

제 목	국 문	부산지역 일부 학동기전(學童期前) 아동들의 비만정도와 그 관련요인		
	영 문	Obesity and Related Factors of Preschool Children in Pusan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조봉수, 조병만, 이수일, 황인경, 차애리, 하이호, 김돈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교실		
	영 문	Bong-Soo Cho, Byung-Mann Cho, Su-Ill Lee, In-Kyong Hwang, Ae-Ri Cha, Ea-Ho Ha, Don-Kyoun Kim <i>Department of Preventive & Occupatio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i>		
분 야	역학	발 표 자	조봉수	
발표 형식	포스터	발표 시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비만증은 일단 발생한 후에는 치료가 어려워서 가급적이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며 경제적이다. 소아비만의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습관을 함양하여야 하며, 특히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학동기전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소아기 비만증의 발병시기는 생후 1년과, 5세에서 6세, 그리고 청소년기이다. 다른 연구자에 의하면 0~4세와, 7~11세가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기에서 절정기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학동기전이 소아비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기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p> <p>최근 우리나라 소아중에 비만아가 급증하고 있고, 식습관도 서구화되고 있어 소아비만에 관한 관심이 높으며, 이에 대한 각종 연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학동기전 아동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들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2~6세의 학동기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비만의 정도와 영양섭취정도, 그리고 식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이들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본 연구는 부산시내 일개 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31개소의 원아 946명(남아 540명, 여아 4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997년 한해동안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신체계측과 설문조사를 하였다.</p> <p>조사된 변수로는 아동의 성, 연령, 키, 몸무게, 상완 중간부 피부두께, 견갑 하부 피부두께와 열량을 포함한 각종영양소, 부모들의 나이, 키, 몸무게, 교육, 직업, 소득이었다. 피부두께는 연구자 1인이 caliper로 상완 중간부와 견갑 하부를 측정하였으며, 몸무게와 키는 이동식 체중계와 신장계로 측정하였다. 식이습관은 24시간 회상법을 사용하여 설문지를 통해 아동의 보호자가 기록하게 하였으며 영양소분석은 영양사 1</p>				

인이 전담하였다.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계되는 변수도 설문지에 아동의 보호자가 기록하게 하였다.

자료의 분석시 체지방율과 표준체중을 이용한 상대비만도, BMI, Röhrer 지수를 구하였고, 이들과 다른 인자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연령의 분포는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아의 평균연령은 4.7 ± 1.1 세였고, 여아의 평균연령은 4.6 ± 1.1 세였다. 키와 몸무게는 연령별로 증가하였으나 체지방율이나 상대비만도, BMI, Röhrer지수는 감소하였다. 성별 차이가 가장 큰 비만지표는 체지방율로 남아는 평균 $12.2 \pm 3.4\%$ 이었으나 여아는 $17.4 \pm 2.4\%$ 였다. 각 지표별 비만아의 비율은 체지방율을 기준으로 할 때가 2.1%(남아 2.4%, 여아 1.7%)로 가장 낮았다.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나이가 증가하였으며, 부의 키와 몸무게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모의 키와 몸무게는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영양섭취는 3세이하 아동들의 경우 한국인 영양권장량에 비해 열량은 많이 섭취하였으나 단백질과 철분의 섭취량은 적게 나타났다. 4~6세 사이의 아동들의 경우 열량섭취가 적었고, 단백질섭취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남아들의 경우 체지방율은 부의 몸무게, 모의 직업과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상대비만도는 부의 키와 몸무게 및 영양섭취와 상관관계가 있었고, Röhrer 지수는 나이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여아들의 경우 체지방율은 모의 몸무게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BMI나 상대비만도도 역시 모의 몸무게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Röhrer 지수는 영양섭취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4. 고찰

본 연구는 부산시의 일개 구에 분포한 어린이집 31개소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조사하였다. 측정오류를 줄이기 위해 신체계측과 영양분석을 1인이 담당하였다.

조사된 비만지표들 간의 상관성은 높았다. 부산지역 일부 학동기전 아동들의 비만정도는 학동기 아동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학동기전 아동의 경우 학동기 아동과 신체발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거나, 비만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성인이나 학동기 아동의 기준을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아동의 비만과 상관관계가 높았던 것은 부모의 몸무게와 키였으며, 이러한 소견은 아동의 비만이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거나 부모들의 식습관에 영향을 받은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학동기전 아동들의 비만과 영양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들을 대상으로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